

통일은 애국이고 분별은 매국이다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애국이란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사상감정이다. 민족적광심을 가진 사람들치고 누구나 애국에 살기를 바라지 애국노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다.

조국이 해방된 때로부터 70년이 가까와오지만 오늘도 과거 일제통치에 협력한 행위가 친일매국행위, 민족반역행위로 력사와 민족의 규탄을 받는것도 이때문이다. 외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수난의 그 세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이 최대의 애국이었다면 오늘 최대의 애국은 조국통일이다. 분별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을 떠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별은 곧 매국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아니면 분별을 꾀하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있다.

조국통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빛내이는 길이다. 외세에 의하여 70년 가까이 지속되고있는 국도량단치 민족분별은 우리 겨레에게 해아

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별로 하여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분별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항시적인 요인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분별로 하여 인적, 물적자원이 헛되이 소모되고 동족대결로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지체되고있다.

반만년 오랜 세월 한민족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겨레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으며 살아오고있는것도 참을수 없는 고통이며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번엔 금강산에서 모처럼 마련되였던 홀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통해서도 우리 겨레는 분별의 참혹한 고통과 통일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다음에는 민족분별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분별의 이 비극을 이제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것이다.

조선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이 되면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루면 존엄있는 통일강국으로 위용떨치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새시대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반면에 대

결과 분별을 추구하는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매국행위로 된다.

지금 겨레의 통일열기는 날로 높아가고 뜨거워지고있다. 누구도 우리 민족의 이 거센 통일지향과 통일대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력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러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원칙이고 의지이다.

민족의 통일념원을 헤아리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올헤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한 문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

기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공화국은 새해에 들어와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련이어 보내고 그 실현을 위해 대법하고 아량있는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조치들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반응을 받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의 시대적환경에서 일신의 안일과 부귀만을 생각하면서 분렬의 비극, 겨레의 통일운동을 외면하는 사람은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고 말할수 없다.

은 겨레는 민족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고귀한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김철웅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조국통일의 념원이 담긴 한편의 노래가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6.15시대와 함께 태어난 이 뜻깊은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민족이 당해온 분렬의 아픔이 뼈저리게 느껴오고 통일강산에서 누릴게 될 가슴벅찬 기쁨이 뜨겁게 와닿는다.

한편의 노래를 들으며

헤어져 산 아픔도 우리만 알아 살 기쁨도 우리만 알아 ...

우리 겨레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통일인가.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렬은 온 겨레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있으며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장

어로 되고있다.

민족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는 노래의 구절인 7천만이 손을 잡고 통일 이루자, 통일 통일 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이것은 시대의 부름만이 아닌 우리 겨레의 심장의 웨침이다.

오가며 뜻깊은 회합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자고 한목소리로 웨치던 그 시절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생활력을 폐부로 절감하였으며 그 길만이 민족의 혈맥을 잇고 끊어진 강토를 잇는 가장 정당하고 빠른 길이라는것을 체험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불과 여섯글자밖에 안되는 짧막한 말속에 는 민족의 자주도 있고 단결도 있고 평화도 있으며 통일을 위한 힘과 지혜도 다 깃들여있다.

오늘 우리 겨레가 들고나갈 통일의 기치는 오직 우리 민족끼리이며 온 겨레가 이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일 때 바라는 통일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성중삼

얼마전 남조선의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는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제1차 평화통일 원로기도회》를 열고 《대박》만을 바라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기도회에서 총회장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지 70년이 되어온다고 하면서 《평화통일은 (대박)으로 되는데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평화에 대해서도 공부해

《진정성을 갖고 10.4선언 실천해야》

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월 핵전문가들이 발표한 《2014년 미국핵전략보고서》를 언급하며 《4대강대국들이 (한) 반도를 둘러싸고 잠수함 각축전을 벌리는 등 동해를 누비고있다.》며 《우리 (한) 반도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모두 깨어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가 과거 간헐적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기는 했지만 《통일이 되는 날까지》 무기한 정기적인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 평화통일위원장은

그는 《현 (정부) 로선 (대박) 이니 수사를 램발할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10.4선언과 경제교류를 실천해야 평화도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열리는 《평화통일 원로기도회》에는 남조선의 여러 기관과 단체,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협의회》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정보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광주, 전라남도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원해체를 요구하여 11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이 시대착오적인 간첩사건을 조작한데서 국민이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일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원 원장과 법무부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사건의 진상도 낱알이 밝혀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조작된 간첩사건은 현 《정권》유지를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정보원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라남도지역단체들도 이날 전라남도 려수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보원해체

를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지금 공지에 물린 정보원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며 사건의 진상을 가려워보려고 책동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민을 정치공작대상으로 각종 사건조작을 일삼는 정권각종 사건조작이든 사회의 악이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정부》가 당장 정보원을 해체하고 그 우두머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작사건장본인에 대한 처벌을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정보비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반강시국회의》가 11일 서울 방학문주변에서 초보집회를 가지고 정보원의 날조행위를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정보원이 이번에는 간첩사건조작으로 물의

를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보원의 행위에 대해 현 집권자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보원 원장의 해임을 약속해야 하였다고 말하였다.

집권자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었다는것은 정보원의 선거개입행위

가 폭로되었을 때 한 말과 꼭 같다고 하면서 그때도 결과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였던 특별수사조의 해체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간첩조작행위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고 장본인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날조와 조작이 란무하는 남조선현실을 개탄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4일 《조작은 붕괴를 부른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얼마전 한 《국회》의원인 지난 《대통령》선거때 현 집권자가 여러가지 사기공작으로 지지표를 건어물임으로써 당선되었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집권자의 당선에서 주요역할을 하였던 그가 공약을 조작하였다고 실토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작이 조작을 낳듯이 《새누리당》이 선거결과까지 조작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투표함의 최종개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준비된 결과가 방송국에서 송출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실례라고 폭로하였다.

관련부정선거로 집권함으로써 조래된 정치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권》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규탄을 받는데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급기야 간첩사건이 터졌지만 그것도 조작이라는것이 드러나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자 집권자가 사건이 자기와 관계없는듯이 말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작의 끝은 과연 어대인가고 하면서 사실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건설업체와 시청공무원이 짜고 공문서를 조작하여 건설한 체육관이 얼마전에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처럼 조작은 결국 붕괴를 부르며 《정권》도 매한가지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국제사회가 《북인권조사보고서》에 던지는 의혹의 그늘

지난 2월 유엔《북인권조사위원회》가 《북인권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한지 꼭 한달만인 지난 17일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렸다.

《북인권조사위원회》가 또다시 최종조사라는것을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하고 이번에는 결의안까지 채택한다고 버둥대지만 그야말로 맥뭉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라는것이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알살의 꼬워망을 조여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조작품이라는것을 국제사회는 너무도 명백히 투시하고있기 때문이다.

《북인권문제》라는 자료 보마리를 공저놓기는 하였건만 남을 속이기에는 그 안의 내용이라는것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보고서》의 내용을 납득시키려면 보고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수적일것이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이라것은 전부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공화국에 앙심을 품은자들의 증언으로 채워져있다.

변절과 배신으로 얼룩진 치욕스런 인생을 합리화하고 동가서서가속하며 거짓을 팔아 명줄을 부지하는것이 반역자들의 생리일인데 《북인권문제》라는것을 아무리 꾸며내어 《진실》이라 실려라고 해도 청명날의 하늘처럼 밝은 세상에서 그런 사실이 누구에게 통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변절자들이 새 사건의 비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비렬한짓도 다한다는것은 법칙이다. 문제는 유엔이 왜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